



2022년 / 1월 3주차

연구원 회원 소식

○ 정경명 이사 장녀 혼례

우리 연구원 정경명(유일의료재단 이사장) 이사의 장녀 정진아씨가 이중원씨와 1월 22일 낮 12시 수원시에 있는 라마다프라자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혼례를 올립니다. 코로나 펜데믹을 뚫고 백년가약을 맺는 정진아씨와 경사를 치르는 정경명 이사에게 축하 인사 전합니다.

○ 연구원 신규 회원 가입

지난 해 12월 30일부터 시작된 연구원 목요강좌를 통해 우리 연구원에 새로운 식구 세분을 모셨습니다.

전주대학교 고전학연구소 거점번역팀의 박성우님, 전주대 HK사업단 김서은님, 전주대 대학원 양희진님이 그 주인공입니다. 세분 모두 21세기 한국사회를 이끌어 갈 MZ세대입니다. 2022년 연구원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줄 새로운 식구들을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김건우 교수와 함께 만나는 孔子 이야기 세 번째 강의를 마쳤습니다.

1월 13일 목요일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에서 열린 한국고전문학연구원 <목요강좌> 세 번째 이야기 “꿈속 주공 - 공자의 이상”을 김건우 교수님을 이야기꾼으로 모시고 함께 나눴습니다. 당일 최저기온이 거의 영하 10도에 이를 만큼 강추위였는데도 강의실의 열기는 뜨겁기 그지없었습니다. 뜻이 있는 회원이라면 백신 접종을 전제로 참석을 협의하실 수 있으니 연구원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연구원 사무국(063-286-3005)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한국고전문화연구원〉 목요 강좌

공자이야기

김건우(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상임이사)

- 1강 야합_공자의 탄생과 가족
- 2강 난신적자_공자와 춘추시대
- 3강 꿈속 주공_공자의 이상
- 4강 늦은 봄에 봄옷이 만들어지면_공자의 제자들
- 5강 집 잃은 개_공자를 바라보는 시각
- 6강 태산이 무너지고_공자의 죽음 그 너머

모집대상
연구원 회원(15명 이내, 수강료 무료)

신청방법
연구원 사무국으로 신청

개강일시
2021년 12월 30일 오후6시 30분

문의사항
연구원 사무국 063-286-3005

■ 역사 속의 오늘

늦봄, 소천하다 - 1994년 1월 18일

21세기에도 여전히 지구 상 유일의 분단국가라 이야기되는 한반도의 두 나라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통일의 목전까지 가기도 하고 철천지 원수가 되어 서로의 가슴에 총구를 겨누기도 한다. 2018년 4월 27일 남과 북의 정상인 판문점에서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고 그해 5월 26일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다시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한반도에 훈풍이 부는 듯 했으나 이후 여전히 답보상태에 빠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되집어 보면 21세기 들어 2000년 6월, 2007년 10월에 이미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에 대한 마음을 모았으나 위정자들의 놀음에 민인들의 마음은 한민족 한핏줄이었다가 원수로 변하는 희비극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시대 분단의 역사를 끝장내고자 삶을 바친 이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이가 바로 늦봄이다. 그는 스스로를 늦봄이라 불렀다. 그런데 이 봄은 봄(春)이 아니라 봄(視)였다. 즉 늦게 눈을 뜨고 늦게 보았다는 뜻으로 일종의 자책의 의미가 담긴 일컬음이었다.

한국에서 손 꼽히는 구약학자였던 그는 강단의 신학자였고, 성서 번역가였다. 히브리 민족의 연원을 하나의 혈연공동체가 아닌 하층 집단의 연맹을 일컫는 '하비루'(천민, 노예, 강도 등의 뜻)로 보았던 그는 구약성서를 관통하는 민중과 지배의 역사, 압제와 저항, 폭군과 예언자의 역사를 통해 '민중'의 중요성을 갈파하고 실천을 통해 그를 선언했다.

절친한 친구 장준하의 의혹 넘치는 죽음을 계기로 그는 암전한 목사, 책상머리의 구약성서 번역자에서 벗어나 한국 사회를 향해 분노를 내지르고 새로운 세상의 빛을 뿌리는 예언자로 나선다. 내 거래에게서 가족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이들을 향하여 포효했고 못된 놈들에게 등쳐 먹히는 착한 사람들을 위해서 절규하는 맹렬한 시인으로 내닫는다. 늦바람만 무서운 게 아니라 늦봄도 무서웠다. 1976년 "늦게 세상을 본"이후 그가 죽은 1994년까지의 18년 동안 그는 11년이 넘도록 감옥에 있었다. 야곱의 돌베개 따위는 그의 고행에 비하면 일도 아니었고, 엘리야가 잡아먹은 메뚜기도 11년이 그의 입에 넣어야 했던 관식보다 맛이 달았을 것이다.

그는 냉철한 전략가가 아닌 열정적인 시인이었다. 강만길 선생께서 "천의무봉"(天衣無縫)이라 표현했던 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심성을 지녔던 그는 사람들의 상상의 저편을 넘어서는 과감한 행동을 종종 선보였다. 1989년 봄의 북한 방문은 그 대표이자 절정이었다.

1994년 1월 18일 늦봄이 죽을 때까지 맑게 빛났던 눈을 감았다.

"우리 지친 어깨 일으켜... 부활의 언덕을 오르자"는 다짐의 노래 속에 그를 보낸 지 22년. 한반도의 하늘은 여전히 흑빛이다.

그는 냉철한 전략가가 아닌 열정적인 시인이었다. 강만길 선생께서 "천의무봉"(天衣無縫)이라 표현했던 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심성을 지녔던 그는 사람들의 상상의 저편을 넘어서는 과감한 행동을 종종 선보였다. 1989년 봄의 북한 방문은 그 대표이자 절정이었다.

1994년 1월 18일 늦봄이 죽을 때까지 맑게 빛났던 눈을 감았다.

그를 보낸 지 28년. 한반도의 하늘은 여전히 흑빛이다.